

YTN, 6년 연속 '가장 공정한 미디어' 선정



201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6년 연속
가장 공정한 미디어
YTN

한국의 뉴스채널 **YTN**



201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6년 연속 가장 공정한 미디어’로 선정된 YTN은 올해에도 시청자를 최상의 고객으로 섬기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뉴스를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2014년 상암동 신사옥 시대의 개막과 함께 아시아 대표 뉴스채널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는 YTN

YTN은 더욱 품격있는 뉴스로 시청자의 사랑에 보답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C O N T E N T S

2013, 출발! YTN	201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002
	사장 신년사	004
	YTN 다음에 가치 설정 - 시청자 위원장 장소원	006
	YTN과 함께해 더욱 뜻 깊었습니다 - 조수미	008
찾아 이슈	YTN, 6년 연속 공정성 1위	010
	보도채널의 역할과 의미를 되새긴다 - 정인숙	
ZOOM IN	YTN 대상 수상기 - YTN 사이언스	012
	뉴스화면 최초 헬기 캠 - 이대환	014
	해외리포터 교육 - 이유미	016
2013을 꿈꾸다	더욱 건강한 한 해를 시작합시다 - 허양임	018
	공채14기의 포부 ... 한연희, 한동오	020
	우리를 주목하세요 ... 임성은, 유승민	022
취재·제작기	BJC 특종상 - 김정원	024
	학교폭력 근절 캠페인 제작기 - 정은경	026
콘텐츠 확대	[YTN라디오] 새해에도 YTN라디오와 함께 - 전진영	028
	[YTN웨더] 날씨로 읽는 경제 - 한성주	030
	[YTN사이언스] 다큐멘터리, 매일 만나세요 - 김신영	032
	[YTN월드] YTN과 함께했어요 - 최효진	034
게시판	게시판	035



“도전과 시련을 꺾고 이겨내고 더욱 발전해 가리라고 확신합니다”



새해 첫날 수도권에는 서설이 내렸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새해 첫날을 잘 보내시고 각자 올 한 해의 설계를 잘했으리라 생각합니다. 회사도 이제 새 첫 업무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 YTN이 나아가야 할 길을 생각해 보고 모두의 각을 다지고자 합니다. 지난 종무식에서 제가 말했듯이 새해 회사는 힘겨운 도전과 시련 속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은 3%대로 지난해와 같거나 더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우리를 따라잡기 시작한 종편 등 경쟁사들과 시청률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연히 우리의 주 수입원인 광고 매출 경쟁도 치열해져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새 정부의 미디어 정책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따라 YTN의 위상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YTN을 둘러싼 대내외의 상황이 어려운 것은 분명하지만 YTN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해 내야만 하고 또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우선 제가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YTN이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최대 상품이자 무기인 뉴스의 경쟁력을 살려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양한 콘텐츠 포맷을 개발하고 시청자와 함께하는 뉴스, 시청자가 궁금해하는 것을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뉴스, 살아있는 뉴스를 만들어 내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산하는 뉴스가 아니라 시청자를 최상의 고객으로 섬기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뉴스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또 스마트 시대에 걸맞는 뉴스 콘텐츠도 생산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편파 저질뉴스가 범람하는 가운데 YTN이 지향해야 할 공정하고 품격 있는 뉴스의 전형을 다시 세우고 시청자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한국의 대표 뉴스 채널 YTN의 위상을 더욱 굳건히 다져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도국을 중심으로 전 직원의 고민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회사는 이를 재정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는 2014년 상암동 신사옥시대의 개막을 앞두고 남대문 사옥에서 보내는 마지막 해입니다. 신사옥 이전 TF팀을 중심으로 사옥 이전을 착실히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전 사원이 합심해서 상암동 시대의 YTN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사옥이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상암동 시대의 개막은 단순한 사옥 이전이 아니라 YTN이 새롭게 바뀌는 계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방송시스템을 비롯한 업무 체계를 효율적으로 바꾸고 온 오프라인 통합 뉴스 룸을 구축해 스마트시대를 선도해 나가야 합니다. 조직과 시스템을 여기에 맞춰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CI 개편작업은 상암동 시대 새로운 YTN을 만들어가기 위한 사전 작업 중의 하나입니다.

YTN 가족 여러분

앞서 얘기한대로 올 한 해는 힘겨운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랬듯이 YTN은 이 도전과 시련을 꺾고 이겨내고 더욱 발전해 가리라고 확신합니다. 올 한 해 YTN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YTN 다음의 가치 설정에 조언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장소원 |
시청자위원회 위원장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YTN은 1993년 대한민국 최초로 '24시간 실시간 뉴스 전문 케이블방송사'를 기치로 내 걸고 출범한 이래, 20년간 국내 최고 뉴스채널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다. 특히 제 6기 시청자위원회가 활동하던 지난 2년간은 새로운 종합편성채널이 4개나 출범하는 등, 방송계의 판도가 커다란 변화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YTN은 시청률에서뿐만 아니라 대중들에게 가장 공정한 뉴스의 전달자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제7기 시청자위원회가 앞으로 2년간 어떤 활동을 할 것이고, YTN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지 적어보기로 한다.

매월 개최되는 시청자위원회는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이 자신의 견지에서 서 바라본 한 달간의 YTN 보도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다. 그 중에는 YTN의 편성과 보도 내용과 진행 방법 등에 대한 찬사도 있지만 대부분은 부족한 점에 대한 질타가 많을 수밖에 없다. 단순한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텔레비전을 볼 때와 달리, 시청자위원이라는 무게를 어깨에 지고 볼 때의 시각이 더 엄정해지기 때문이다. '저런 건 이렇게 보도했다라면 더 좋았을 텐데...', '저 뉴스는 좀 더 심층을 파고 들었더라면...', '저 뉴스는 배경에 대한 설명을 더 많이 해주었으면...' 하는 식으로 품었던 생각을 시청자 위원회에 와서 개진하는데, 열 명이 넘는 위원들이 모두 각 분야의 전문가이다 보니 한 시간의 회의 시간 동안 수십 가지의 지적이 쏟아진다. 그 때마다 YTN의 실무담당자들은 그렇게 된 사정을 설명하기도 하고, 개선의 의지를 밝히기도 하면서 좀 더 나은 YTN으로 가는 방법을 같이 고민하는 것이 시청자위원회의 활동이다.

이번 제7기 시청자위원회의 활동도 큰 틀에서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언론전문가 뿐 아니라 정치문제 전문가, 법조계, 경제계, 문화계, 여성계, 소비자단체 등 정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매의 눈과 같이 날카로운 시각으로 YTN의 방송을 시청하고 난 후, 꼭 하고 싶은 말을 정리해서 그 자리에 나설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면 공은 YTN으로 던져진 셈이 된다. 시청자위원회에서 개진된 다양한 의견들을 균형 있게 받아들이고 소화해서 더 나은 방송을 만들어 가는 것은 YTN의 몫이기 때문이다. 지난 2년간 경험한 바에 따르면, YTN의 각 실무자들은 시청자위원회에서 언급되는 어떠한 문제도 가벼이 여기지 않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앞으로의 2년간 YTN은 더욱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YTN 제7기 시청자위원회

위원장 |
장소원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YTN은 개국한 지 20년이 꼭 차서 성인이 된다. 지금까지는 외관을 갖추는 성장기였다면 이제부터는 성인으로서 본격적인 정체성을 찾아 든든히 자리 잡는 시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YTN이 지향해야 할 모습이 어떠한지, 할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함으로써 YTN다음의 가치를 설정하는 일이 먼저 행해져야 한다. 그 작업을 돕기 위해 매월 개최되는 시청자위원회가 있고, 언제나 든든한 조언을 아끼지 않을 열 두 명의 위원들이 자리하고 있음 또한 기억되길 바란다.

부위원장
반장식
서강대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장



위원
고일동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소장



위원
삼재명
명필름
대표이사



위원
윤석년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위원
우창복
범무법인 율촌
대표 변호사



위원
김기덕
동아방송예술대
교수



위원
김양희
전다인리더십
대표



위원
이태형
전문우주기획
대표이사



위원
이강평
부국환경모임
공동대표



위원
김용관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



위원
임호균
한국광고주협회
사무총장





우리의
삶과 미래가
더욱 환하고
아름다워
지리라 ...

조수미

2013년 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돌이켜보면 2012년 저의 한 해는 다른 해 보다 유독 많은 공연과 대외 활동을 했던 한 해였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공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사절단으로 런던 올림픽 문화 공연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와 수교 관계를 기념하는 공연에도 참여하여 높아진 우리나라의 인지도를 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실로 놀랄만한 성장을 거듭한 대한민국이 세계 각국에서도 인정받는 나라로 자리매김한 것을 보고 뿌듯한 마음 감출 수 없었습니다.

지난해 저는 음악적 동반자인 러시아 작곡가 이고르 쿠르토이와 함께 새로운 라이프 클래식이라는 음악 장르에 도전하여 2012년 연말 <La Luce(빛)>이라는 앨범을 여러분께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녹음을 마치고 앨범 제목을 생각하던 중,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아픔과 어둠이 곳곳에 존재함을 느꼈습니다. 지구 온난화 현상, 기후 변화로 인한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가 우리를 힘들게 했고 테러와 전쟁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더욱 각박해져 가는 이 세상에 한 줄기의 빛이 내려 환하게 비출 수 있다면 우리의 삶과 다가올 미래는 더욱 환하고 아름다워지리라 생각에서 앨범 제목을 <La Luce(빛)>으로 정했습니다.

한 해를 보내며 갖게 되는 무거운 마음에 위안을 줄 수 있는 빛과 같은 존재가 바로 음악이었습니다. 음악이 없는 이 세상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이 세상이 무미건조하고 삭막한 세상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 새삼 음악의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2013년 한 해도 음악을 통해 많은 분께 환한 빛처럼 화사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기쁨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조수미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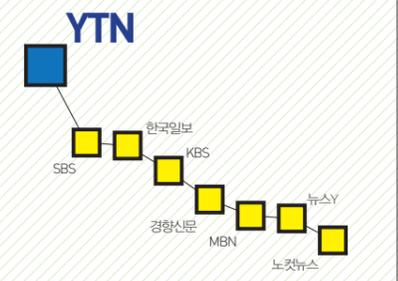
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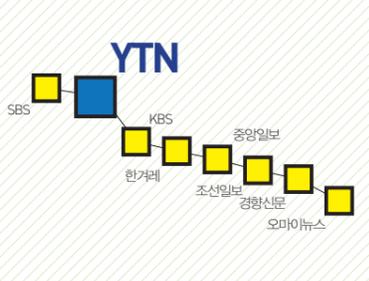


'가장 공정한 미디어'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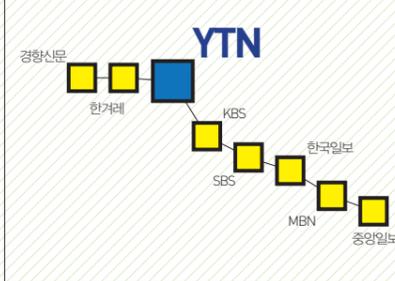
가장 공정한 미디어 1위



가장 유용한 미디어 2위



가장 신뢰받는 미디어 3위



YTN이 우리나라 언론사 가운데 최초로 6년 연속 '가장 공정한 미디어'로 선정됐다. (사)미디어미래연구소는 2007년 미디어어워드 출범 이래 1위를 놓치지 않은 YTN이 '특성이슈나 이해당사자에 편향된 보도행태를 보이지 않는지 평가하는 공정성 부문'에서 '2012년 가장 공정한 미디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YTN은 '다양하고 흥미 있는 콘텐츠를 다루고 있는지, 뉴스 및 정보를 신속하게 보도하는지,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콘텐츠를 다루는지를 평가하는 유용성 부문'에서도 SBS에 이어 근소한 차이로 2위를 기록했다.

YTN은 '제공하는 뉴스 및 정보가 건전하고 정확하며, 전문적이고, 믿을만한지, 상반된 보도가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참고할 것인지를 평가하는 신뢰성 부문'에서는 경향신문과 한겨레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언론분야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한국언론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 한국의 뉴스채널 YTN은 '6년 연속 가장 공정한 미디어'라는 최고의 평가와 함께, 유용성과 신뢰성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아 명실공히 한국을 대표하는 우수 언론사로서의 높은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다.

이번 조사 결과는 미디어미래연구소가 2012년 한국언론학회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11월 5일-20일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응답자수는 483명이다.



어느 분야에서든 6년 연속 최고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다. 미디어미래연구소가 전국 언론학회 회원 4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언론사 평가에서 YTN이 6년 연속 '가장 공정한 미디어'상을 수상했다. 종합뉴스를 제공하는 5개 방송매체, 4개 종합편성채널, 신문 구독자 점유율 상위 6개 종합일간지, 방문자수 상위 2개 종합인터넷신문 등 17개 미디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YTN은 정치적 중립성과 편향되지 않은 보도행태 항목에서 17개 미디어 중 유일하게 3점대를 기록했다. 언론의 가장 중요한 가치 기준 중 하나가 공정성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YTN의 수상은 뉴스전문채널로서 매우 값진 성과이다.

연중무휴 24시간 뉴스채널을 편성하기 위해 쏟아온 구성원들의 열정과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힘찬 박수갈채를 보낸다. 하지만, 자만이나 자화자찬은 금물이다. 냉정하게 말해서 제한된 성과일 수 있다. 전문가의 평가가 대중의 평가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추세적 측면에서는 상충된 결과를 보여주는 평가지표도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012년 방송평가 결과에서 YTN 평가점수는 3년 연속 하락하였다. 내용 및 편성(250점 만점)에서 209.43점, 운영(250점 만점)에서 178.34를 기록하였으며, 재무 건전성은 30점 만점에 16.5점에 불과했다.

2013년에도 YTN이 공정성 최고의 언론으로서 선정되어 7년 연속 수상하기를 기대해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획기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세계 최고의 CNN마저 시청률이 창사 이래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케이블 뉴스전문채널의 미래는 매우 불확실하다.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해야 한다. 첫째, 스마트 미디어와 SNS에서 공유되는 정보의 양과 질이

새로운 저널리즘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뉴스 전문 채널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좌표를 설정해야 한다.

24시간 뉴스채널, 실시간 속보라는 포지셔닝을 넘어서는 YTN만의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내야 한다. 둘째, 국민이 즐겨 찾는 최고의 언론이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당신을 찾아갑니다'라는 YTN의 인서트 캐치프레이즈는 반복되고 있지만, 6년 연속 공정성 평가 1위의 24시간 뉴스채널로서 YTN이 보여주는 시청률은 너무 낮다. 동일 장르 간의 비교가 아니라 하더라도 후발 종합채널보다 낮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문제이다.

형식 면에서도 후발 종합편성채널이 보도프로그램을 100% HD편성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YTN의 HD편성비율은 연간 94.2%에 그치고 있다. 셋째, 무엇보다도 구성원 스스로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보도 생산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뉴스생산의 내부적 구조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면 6년 최고의 성과에 흠집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이다. YTN 뉴스가 최고가 되려면 뉴스 생산의 내적 구조에 대해서 종사자의 공감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도 공감할 것이다.

정인숙 | 가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YTN만의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야...

YTN SCIENCE, YTN 대상을 거머쥐다

먼저 2012년 YTN 대상을 받은 것에 대해 YTN 모든 구성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지난해는 YTN SCIENCE 방송 사상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아니었나 싶다. 이유는 3차 과학기술전문방송 사업자를 놓고 여러 회사와 치열한 경쟁을 했기 때문이다. 사업계획서와 프레젠테이션, 현장실사 등 해야 할 것만 잘 준비하면 좋은 결과가 당연히 따라오리라 생각을 했다. 사업권을 둘러싸고 험난한 과정이 발생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그것은 우리 생각에 불과했고 사업자를 따내기 위한 싸움이 시작됐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과학전문방송사업자를 3년마다 새로 선정한다. YTN SCIENCE는 2007년 9월에 개국해 햇수로 6년 동안 과학방송을 해오고 있다. 초기 인지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제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과학방송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경쟁사들은 형세 낭비니, 과학방송을 볼 수 없다느니, 대표 프로그램이 없다느니 하면서 우리를 공격했다. 사업계획서에 집중해도 모자라는 판국에 언론 대응까지 해야 하니 시간적, 인적으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었다. 경쟁사의 신사답지 못한 언론 플레이에 결국에 언론중재위원회까지 가는 일까지 벌어졌다. 물론 언론중재위는 YTN SCIENCE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밖에 YTN SCIENCE를 폄하하는 일들이 자주 벌어졌다. 그때마다 일일이 대응해 진을 빼느니 3차 사업을 따내기 위해 오로지 사업계획서에 충실하기로 했다. 사이언스TV본부의 모든 구성원이 부지기수로 밤을 새워가면서 철저히 그리고 꼼꼼하게 모든 준비를 했다.

지난해 10월 초 지루하면서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싸움은 YTN의 승리로 끝났다. 만반의 준비 끝에 얻어진 값진 결과라서 더욱 기쁘다. 이로써 YTN SCIENCE는 대한민국 과학채널로서 위상을 높이고 과학기술 발전에 일조하는 기회를 갖게 됐다.

과학기술은 그 나라의 발전을 가능할 수 있는 척도다. 또한 역사는 과학과 함께 흘러왔고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 읽고 있는 YTN 사보도 과학기술의 산물이다. 무한상상 창의채널 YTN SCIENCE는 3차 사업을 시작으로 앞으로의 10년을 내다보며 채널인지도 제고와 사명감으로 유익한 콘텐츠 제작에 매진할 것을 약속한다.

류희림 | 사이언스TV본부장

다시 한번
YTN 대상 수상에
전폭적인 지지를 해준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YTN SCIENCE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과학, 미래를 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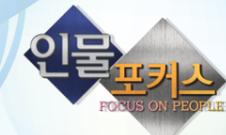


YTN SCIENCE 다큐



의학칼럼

한국인의 맛



“어? YTN 여기서 헬기 띄웠어요?”

이대환 | 중계부

나로호 3차 도전! YTN 항공촬영 1차 도전!

4년 전 나로호 1차 발사, 이번에 3차 발사가 저에겐 두 번째 나로호 발사 출장입니다. 외나로도 가는 동안 출발 전에 준비했던 것들을 꼼꼼히 되짚어 보았고, 기상 등으로 비행할 수 없는 조건이면 어찌해야 할지 그때를 대비한 상황도 점검하면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한 외나로도 생각보다 날씨도 좋고 무엇보다 아름다운 경치와 코끝을 간질이는 상쾌하고 시원한 공기가 마음을 한결 차분하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도 차에서 장비 하나하나를 꺼내어 내릴 때에는 또다시 실전이라는 긴장감과 예측할 수 없는 결과 등으로 다시금 얼굴이 굳어져 갔습니다.

우여곡절 많았던 나의 고진감래 RC(Radio Control)

처음 RC를 배우기 위해 모형항공조종교육을 받으려 전주까지 3달간 휴일마다 내려가면서 고생을 했지만, 그 과정은 총 네 대의 멀티콥터, 22개의 프로펠러를 파손하는 등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아! 이젠 잘 날리고 잘 조종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해 실습하면 추락하고 부서지기가 다반사고 거기다 가상 시뮬레이션 교육까지 더해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멀티콥터라는게 기존의 헬리콥터같이 제자리 정지비행(호버링)이 가능하며 자이로, 가속도, 지자기 센서 등 몇 가지의 센서를 이용해 기체 자세를 제어하는 기능이 있어 안전 비행이 가능하다는 점과 기체의 진동이 많지 않다고 배웠는데 이론과 현실은 너무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헬리콥터를 10년째 조종하시는 분은 엄지 지문 중앙에 쌀 한 톨 만한



굳은살이 생겨야 할 정도로 연습해야 웬만큼 숙달되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며, 숨을 헐떡이면 기체도 함께 헐떡이니 항상 기체와 혼연일체가 되어야 잘 다룰 수 있다고 하더군요. 어쨌든 그동안의 고생했던 시간이 내일이면 어떤 식으로든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는 생각에 쉽게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어? YTN 여기서 헬기 띄웠어요?”

다음날, 나로호 3차 발사 D-2 이날 경쟁사나 현장요원들이 여기서 어떻게 항공촬영이 가능하냐고 물어 오기도 해서 “카메라만 탈 수 있는 헬기”라고 말했는데 말 그대로 사람이 타서 조종하는 게 아니라 무선조종기로 카메라만 장착해 촬영하는 거였습니다. 크게 묶어 말해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로봇 캠 이라는 장비처럼 사람의 조종을 통해 사용하는 기술이죠. 이 멋진 기술을 처음 미 해군 DEVGRU(Development Group)에서 Drone이라는 네 개의 프로펠이 달린 헬기에 카메라를 장착해 테러 진압 시 현장 상황을 수집하기 위해 사용하였는데 이걸 헐리우드에서 영화용으로 사용한 것이 바로 지금의 멀티콥터입니다. YTN이 처음으로 헬캠을 뉴스 프로그램에서 사용했습니다. 타 방송사는 몇몇 예능 프로에서 가끔 사용하기도 하고, 모형항공클럽 동호인들은 ‘어느 시골 스마트한 할아버지’께서는 이걸로 밭에 농약도 친다는 후문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잘 했나구요?

첫 비행인지라 조금의 실수도 없도록 노력하고 촬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부단하게 뛰어다녔습니다. 나로 공원 안에 있는 모형로켓을 따라 올라가며 이륙해 200미터 상공까지 올려보고 멀리 떨어진 좁은 방파제에서 바다 물길을 쓸어가며 촬영도 했는데 아마 이때가 가장 겁나고 긴장되었습니다. 저보다 옆에서 도와주던 선배가 바다에 빠질까 봐 안절부절못하며 잔소리까지 하시는데 렌딩하고 나서는 박수까지 쳐주시며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YTN의 팀워크와 응원 덕분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나로호 발사보다 더 준비된 YTN 식구들

4.5킬로의 쇠덩어리를 상공에서 자유자재로 움직인다는 건 너무도 어렵고 자칫 사고로 이어지는 거라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현장 분위기나 날씨 상태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어 차라리 제가 매달려서 촬영하고 싶을 정도로 하늘에 떠있는 기체는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원경태 중계PD와 이광희 기술감독, 박경태 카메라감독 등 세 분의 철저한 사전답사와 책임감이 좀 더 완벽한 방송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거기다 이기주 선배와 한철욱 선배는 중계차 안팎을 뛰어다니며 두 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 주셨습니다. 열정과 도전뿐만 아니라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신념, 책임감이 있었기에 나로호 중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항공촬영의 성공 가능성을 예측하고 부단한 노력과 응원을 해주신 전용화 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젠 나로호가 아닌 또 다른 곳에서 비행하기를

첫 비행을 무사히 이룬 만큼 앞으로도 더 많은 곳에서 무사히 비행하며 다양하게 활용되어 영상촬영의 신기원을 계속 열어나가길 바랍니다.

“YTN이 쫘... 그렇습니다”

이유미 | 사우디아라비아 리porter

조금씩 추워지기 시작하는 가을날, 서울의 높은 빌딩과 곱게 단풍이 든 가로수가 한눈에 들어오는 프레스 센터 12층에 12명의 YTN 해외리porter들이 모였다. 북미, 유럽,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 등 사는 곳도 다양했고, 시작한 지 4개월이 되는 사람부터 해외리porter 원년 멤버까지 경력도 다양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이지만 화면을 통해 만났기 때문인지 낯설지 않은 느낌의 얼굴들이었다.

5일간 아침부터 저녁까지 짝 차여진 교육 시간표. 하지만 걱정보다는 기대감에 마음이 들떴다. 목이 탈 때 물도 달고, 배고플 때 음식이 맛있듯이, 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기에 모든 수업이 너무나 재밌고 유익했다.

첫 시간은 사이언스TV 류희림 본부장의 기사 작성법. 지금까지 방송 영상과 함께 기사를 보낼 때, 기사 문장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단순히 정보 전달 위주로 글을 써서 보냈었다. 이번 강의를 통해 기본적인 이론을 배우는 것은 물론이며, 직접 보도자료를 참고해 기사를 작성해보기도 하고, 한 아이템에 대해 각 방송사에서 보도한 내용을 비교하기도 하며 간결하면서도 시선을 사로잡는 뉴스 문장에 대해 알게 되었다.

둘째 날 조성룡 영상편집부장의 강의는 가장 즐기고 힘든 오후 4시 강의였는데, 교육생들의 방송을 모니터링하며 주의할 사항과 장단점을 한 명씩 모두 지적해주어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다. 시간이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셋째 날 최영주 기자의 강의는 반응이 정말 뜨거웠다. 12명 중 8명의 리porter가 남성이었는데, 강의에 집중하고 호응하는 분위기가 아주 대단했다. 강사의 미묘뿐 아니라 강의의 내용도 인상적이었는데, 뉴스 내러이션은 단순한 리딩(reading)이 아니라 텔링(telling)이기 때문에 뉴스의 오디오를 녹음할 때는 또박또박 읽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를 생각하며 자연스럽게 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인터뷰할 때 어려움과 노하우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현장에서 체득한 다양한 노하우를 하나씩 나누니 아주 유용한 정보가 되었다.

마지막 날 조용원 영상취재부국장의 강의는 가장 기억에 남았다. 오전 강의에서는 촬영에 대한 다양한 기법과 이론을 배웠고, 오후에는 직접 밖으로 나가 촬영을 해본 후 함께

뉴스의 오디오를 녹음할 때는 또박또박 읽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를 생각하며 자연스럽게 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인터뷰할 때 어려움과 노하우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현장에서 체득한 다양한 노하우를 하나씩 나누니 아주 유용한 정보가 되었다.

모니터링하는 시간을 가졌다. 둘씩 짝을 이뤄서 촬영을 나갔는데 나는 마침 옆자리에 앉은 뉴욕의 김창종 리porter와 팀이 되었다. 김창종 리porter는 촬영에는 베테랑이었는데, 같은 아이템을 촬영하면서도 어떻게 포인트를 잡고 어떤 장면을 찍는지 비교가 되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촬영에 대해 어려움과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마지막 날 강의를 통해서 많은 부분이 해결되었다.

5일간의 교육기간, 총 9명의 강사진 중에 가장 좋았던 것은 모두 YTN의 강사들이었다. 외부강사들의 교육은 정보와 연변은 좋았지만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 YTN의 강사들은 해외리porter의 특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을 선택적으로 뽑아 알려주셨다.

해외방송 간담회 시간에 “YTN 강사가 훨씬 좋고 유익했습니다.”라고 말하자 권오진 해외방송팀 팀장은 겸손한 미소를 지으며 “YTN이 쫘...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셨다.

YTN이 쫘... 그렇다. 정이 있고 의리도 있으면서 실력도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고, 방송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타 방송사에서는 ‘통신원’이라는 이름만 걸어주고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데, YTN은 ‘해외리porter’라는 고유명사로 우리를 지칭하고, 매년 많은 품을 들여서 리porter 교육을 하고, 교육 내내 퇴근 직후 달려와 저녁 식사 자리를 같이 하며 함께 시간을 나누고 정을 나눴다. 특히 내 담당인 박선영 PD와 해방팀의 인방마님인 김여진 앵커는 임신 중인 나를 항상 배려해줘서 너무나 고마웠다.

찬바람이 불고 비도 왔던 스산한 가을날이었지만, 새로운 만남이 있고 그 안의 앞, 배움, 정, 나눔이 있었기에 어느 봄날보다도 따스롭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글로벌뉴스센터의 모든 팀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또한 이번, 9회 교육에 참가한 모든 해외리porter들과 참가하지 못했지만 각 나라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해외리porter들에게 이 글을 빌어 안부의 인사와 응원의 메시지 보내고 싶다.

해외방송팀의 해외리porter 교육, 지난해에는 11월 초순에 12명의 해외리porter를 초청했다.



좀 더 유익하고 좋은 내용으로 '허양임의 건강정보'를 채우겠습니다.

허양임 | 교수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

안녕하세요,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허양임입니다. 지난 8월 '여름철 건강관리'라는 주제로 YTN 뉴스에 출연한 이후, 관계자분들께서 잘 봐주신 덕분에 뉴스 고정 출연을 제안받았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 매주 방송을 하는 것이 처음에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질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서 출연을 고민했었습니다. 하지만 질병이 발생하기 전 예방과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정의학과 의사로서, 병원을 찾지 않는 많은 분께 필요한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것 또한 환자 치료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란 생각에 매주 월요일 1시 뉴스&이슈에 '허양임의 건강정보' 코너로 고정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YTN 뉴스가 워낙 인지도가 높고 많은 분이 시청하는 방송이다 보니, 방송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진료, 검진 상담 등을 받으러 오시는 환자분들이 알아봐 주시고, 방송 잘 보고 있다,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된다 등 말씀을 건네주실 때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한번은 40대의 중년 여성이 두통에 관한 방송을 보시고 외래로 찾아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단순 두통인 줄 알고 진통제만 간간히 복용하며 지내셨는데, 그 기간도 오래되고 정도도 더 심해지는 것 같고, 만성두통일 경우 기저 질환을 확인해야 한다는 제 얘기를 듣고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다행히 신체검사나 뇌 MRI에는 특이 소견이 없었는데, 자세히 문진을 해보니 두통이 자주 있다 보니 진통제를 의사 처방 없이 상시 복용하고 있던 분이셨습니다. 약물을 과량 반복적으로 복용하는 것 또한 흔한 만성 두통의 원인임을 설명해 드리고, 혼자 복용하는 약을 끊고, 생활 요법과 함께 약을 증상이 있을 때만 적절한 용량으로 드시도록 하였습니다. 그 후 환자분의 두통은 횟수도, 정도도 많이 줄어들어 약 복용 없이도 잘 지내고 계십니다. 이 환자분처럼 너무 흔해서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고 방치하거나 혹은 마음대로 약을 복용해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 'YTN 건강정보' 방송을 통해 다양한 증상, 질환들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림으로써, 언제 의사를 찾아야 하는지, 스스로 관리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는 것이 정말 필요하고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청자 입장일 때에는 방송을 만들어 내보내기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미처 몰랐는데, 방송하면서 정말 많은 분의 수고와 정성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알게 되어, 이제는 모든 프로그램을 좀 더 고마운 마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출연 기회를 주신 관계자분들, 매주 주제 선정을 위해 함께 고민해주시는 기자분들, 앵커분들, 조금이라도 잘 나오게 해주시려고 애쓰시는 헤어, 메이크업해주시는 분들, 카메라, 조명 기사 분들께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올해에도 제가 전해드리는 건강 정보가 좀 더 유익하고 좋은 내용으로 시청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YTN이 더욱 번창하는 2013년이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이 너무나 기대 된다

한연희 |
사회부

새해맞이 리포트를 만들기 위해 이리 저리 섭외할 곳을 알아보는데 옆자리에 앉은 모 신문사 선배가 전화를 하며 마구 화를 낸다. 수습이 한 시간이나(?) 늦게 보고를 했단다. 아팠다면서 수습이 끝난 지 몇 개월 되지 않은 나는 이따금씩 타사 선배들이 자기 수습에게 화를 낼 때면 감짝감짝 놀라곤 하는데, 방금 전에도 화가 난 선배의 마음보다 전화를 하기 전까지 그 수습의 머릿속을 오갔을 수많은 고민이 떠올라 그 수습이 참 안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몹시 화를 낸 그 선배도 계속 '이게 말이 되나, 그런데 정말 아픈 거면 어찌지'하며 한숨을 푹푹 쉰다. 그 선배를 보고 있자니, 전화하기 전이면 언제나 심호흡을 하던 내 모습과 역정을 내고선 마음아파 했을(부디!!) 내 일진의 모습이 떠오른다.

올 한 해는 내게 알을 깨고 나오는 시기였다. 아직 한쪽다리만 알에서 나온 느낌기기는 하지만 그래도 알을 깨기 위해 노력했다. 가족이 아닌 누군가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또 가족이 아닌 누군가에게 평생 들은 것보다 더 많은 욕을 듣기도 하며 마음을 단련시켰다. 삼일동안 씻지 않은 모습으로 첫 스탠드업을 잡으며 뻘뻘함을 키웠다. 몇 달 동안 한 두 시간씩 자도 버틸 수 있는 체력을 확인했고, 처음부터 끝까지 건질 문장 하나 없는 기사를 써가며 보잘 것 없는 글 솜씨를 확인했다(지금도 확인하고 있다!).

나와 1년을 함께한 선배들도 내 알을 쉰 새 없이 쪼아주었다. 수습 때는 말할 나위도 없고, 수습이 끝난 지금도 마찬가지다. 기사를 피바다로 만들어 조금이라도 더 기사를 잘 쓰게끔 가르쳤다. 기획을 어려워하는 나에게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해쳐 나갈 방향을 잡아 주었다. 내 오디오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고칠 방법을 조언해주셨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 나의 성장을 바라며 지켜봐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나를 조금 더 긴장하게 만들고, 더 열심히 하게 만든다.

지난 한 해,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로였으리라 생각한다. 성장과 변화를 위해 나를 비롯한 구성원들은 끊임없이 노력했다. 술자리에서도 회사의 미래를 생각하며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눴고, 나의 잘못은 내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회사 전체의 손해임을 계속해서 상기시켰다. 이런 회사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구성원의 애정이 넘쳤다. 애정은 열정으로 이어졌다. 시청자를 비롯한 회사 밖의 사람들은 우리가 옳은 방향을 향해 잘 가고 있는지 지켜봐주고,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더 긴장하게 하고, 더 열심히 하게 했다고 생각한다. 2013년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안으로는 노력하고, 밖에서는 채찍질하고, 애정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2013년이 너무나 기대된다.

한동오 |
사회부

'밥값' 하는 기자가 되자!

시작은 손이었다. 경찰서 마わり 돌던 수습 때였다. 형님(경찰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 손을 보고 다녔다. "형님은 건강선이 길어서 벽에 뚫찰하시겠어요~", "형님은 나쁜 남자다~ 결혼선이 두 개네!" "쌀"을 풀다 보면 마음도 풀렸다. 자잘한 사건들이 들렸다. "아이, 이건 별거 아닌데 그냥 번사야~", "한 기자, 우리 보도자로 낼 건데, 미리 한번 들러~" 정보가 곧 능력이었다.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선배한테 전화를 걸었다. "형님이 저한테만 알려준 건데요, 기획사 대표가 성폭행을...", "신촌에서 누가 칼 맞고 죽었답니다!" 누군가의 불행이 나에게 휴식이었다. 보일 듯 말 듯한 선배의 '실드'가 느껴졌다. 아침 먹고 한 시간이라도 더 잘 수 있었고, 며칠 동안은 얘기 안 되는 사건만으로 추가 보고가 없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다. 기자가 됐다, 드디어.

"수습 한동오입니다! 아 맞다..." 반년 동안 입에 붙은 말 '수습',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아직도 선배의 '수습'이 필요한 시기에 덜컥 기자가 됐다. 그렇게 시작됐다. 일정이 잡히면 아침부터 단신에, 전화연결에, 리포트에, 제작 끝나면 켜켜이 쌓여있는 라인 기사까지..., 많은 라인은 게다가 경기도, 서울보다 넓다 보니 강력 사건이 넘쳤다. '찌르고', '뒹치더라도' 피해자는 기본적으로 단수가 아닌 복수였다.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마다 여유는 사라졌다. 기사가 손에 익는 만큼, 친구들이 떠나갔다. 여자친구의 마음도 멀어졌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칼퇴하면 밤 9시, 회식하면 11시였다. 그렇게 바라던 기자가 됐는데, 뭐랄까, 이 기분은... 공기공기했다.

이래저래 1년이 갔다. 그래도, 사건이 터지면 가슴이 뻐다. 화재 현장의 메케함을 맡고, 사건 현장에 숨은 CCTV를 보면 두근두근 설렌다. 그렇다고 해서 경찰팀에 뼈를 묻고 싶다는 말은 아니다!! 좋은 경험은 나중에 들어올 후배들도 느껴야 하니까... 어쨌든 새해 다짐을 세웠다. '밥값' 하는 기자가 되자! 기자가 되고 싶던 이유를 떠올렸다. 진부했지만 뜨거운 열정이었다.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싶었고, 굼직한 특종으로 거액을 척척하고 싶었다. 되고 싶은 이유는 잊히고, 되지 못한 핑계만 늘어났다. 간극은 시리도록 차가웠다. 좋지 않은 기사를 쓸 때마다 시청자들의 댓글은 비수처럼 파고들었다. 틀린 팩트를 시청자들에게 지적당할 때마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대체 기사를 올렸다. 올해는 누군가의 보좌가 필요한 0.5명의 기자가 아닌, 혼자 뉘뉘도 할 일 다 하는 단 한 명의 기자가 되고 싶다.





‘나 임성은은 다이아몬드다’

임성은 | 기상캐스터

“오늘 전국이 대체로..맑..겠습..니다. 바깥 활동하기.. 수월..하겠는데요” 아직도 생생하다. 기상캐스터가 되고 처음으로 생방송에 투입되던 날. 2012년 10월 28일.

정말 온몸이 사시나무 떨 듯이 덜덜덜 떨렸고, 내 심장 박동수가 그렇게 크게 들리는 날은 처음이었다. 몸뿐이라, 목소리도 떨리고, 긴장한 탓에 읽는 속도는 WARP~!! 방송을 끝내고 나왔을 땀, 온몸의 근육이 다 풀려 제대로 서 있기조차 어려웠다.

최종우돌 나의 생방송 입봉(?)이 끝나고, 기상캐스터의 업무에 적응하느라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겠다. 누군가가 임성은 기상캐스터라고 불러주면 어색할 때도 잦다. 하지만 매 순간 기상캐스터라는 직업이 매력에 빠져들고 있고, 하루하루 기상캐스터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하려고 노력하면서 내 자리에 걸맞게 행동하려고 한다. 말처럼 쉽지 않지만..^^

드디어 2013년 계사년의 새해가 밝았다. 기상캐스터로서 일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4개월째다. 회사 선배들의 경력에 비하면 아직 기어다니는 아가 수준이지만, 벌써 4개월이 다 되었다.

‘나 임성은은 다이아몬드다.’ 아름답고 화려한 다이아몬드도 처음에는 투박하고 불품없는 원석이다. 지금의 나는 다이아몬드의 원석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다. 아직은 부족한 점도 많고 제대로 가꿔지지 않았지만, 올 한 해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우고 느끼면서, 내면의 가능성을 끌어내 최대한의 능력을 뽐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2013년, 진정한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기상캐스터 임성은을 기대해보자! 임성은 파이팅! YTN 파이팅!

전문가답게 날씨 정보를 알려주고 싶습니다

유승민 | 기상캐스터

어느덧 입사한 지 벌써 3달이 지났습니다. 아직 일이 서툴러 실수투성이에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조차 모를 정도입니다. 일하면 할수록 저의 부족한 점도 더욱 많이 알게 됩니다. 자책도 하게 되고 속상해서 우는 날이 더 많기도 합니다.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많은 선배님께서 “다 지나가니 조금만 힘내서 버티자!”라고 격려를 해주실 때마다 힘이 붙곤 솟아납니다. 매일 아침, 주변 분들의 말 한마디나 눈빛을 떠올리며 용기를 내자고 다짐하곤 합니다.

좋은 선배들과 함께 일한다는 것에 감사하며 저에게 힘을 줬던 선배들을 위해서라도 잘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낮은 기계로 편집을 해야 하고, 중계가 있는 날은 강추위를 뚫고 밖에서 녹화해야 하며, 익숙지 않은 용어들로 채운 원고를 10개 가까이 써야 한다 나....., 이걸 어떻게 해낼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떨어진 적이 없던 저였지만 얼굴이 안 보이는 라디오를 할 때도 떨리는 목소리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처음 생각해보면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녹록치 않은 방송 일을 하며, 이제야 저의 직업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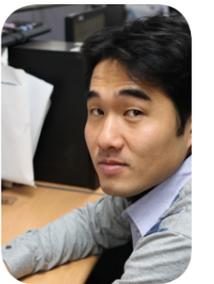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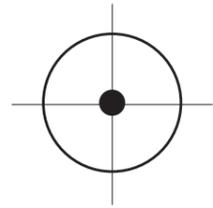
2013년에는 보다 발전한 모습으로 전문가답게 날씨 정보를 알려주고 싶은 게 목표입니다. 자신 있어 보이고 신뢰가 가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타 언론사에게 현장을 공유하면 안 된다!”

김정원 | 영상취재부



스포츠 선수들은 몇 년의 피땀으로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노릴 수 있지만, 기자들에게 올림픽 금메달 같은 대특종은 언제 눈앞에 나타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설령 나타난다 하더라도 준비돼 있지 않거나 내공이 딸리면 놓치기 십상입니다. 나름의 최고 전투력을 뽐낸다는 11년 차에 기회는 우연하게 찾아왔습니다. 그날따라 1등으로 출근했고 바로 총 맞고 간 곳이 바로 특종현장. 취재원은 전날 개인비리 혐의로 검찰수사 선상에 오른 현 정권 최고의 실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인터뷰 안하기로 유명한 기자들 사이에서도 취재에 비협조적인 걸로 유명한 위원장인지라 외경스케치만 하고 빠지려 했으나 그래도 한번 시도는 해보자는 심사로 경비원을 따돌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아파트 벨을 눌렀습니다.

헐 이게 웬일입니까... 밥 먹고 있으니 몇 분 후에 문 열어 줄 테니 기다리라 합니다. 속는 셈 치고 잠시 기다린 지 수 분만에 문이 열리고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실세 중의 실세인 최시중 위원장이 파자마차림으로 어디엔가 심각한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여우 중에 여우가 장소를 바꿔가며 그림을 만들어주는 김새를 눈치챘고, 촬영은 절대 하지 말아 달라는 사모님의 완곡한 톤과 뉘앙스는 10년 차인 저에게 아무런 제지가 되질 않았습니다. 스케치를 어느 정도 하고 비리 관련 루머를 녹취한 후에 1보 화면출을 위해 문을 나설 때 사모님의 대선자금 관련 몇 마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1보 송출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 몇 마디가 어떤 의도인지, 어떤 파괴력을 가진 몇 마디인지 파악되질 않았습니다. 송출 후 권민석

기자가 재차 대선자금 관련 얘기를 똑똑히 들었다고 하여 아~~ 분명 우리에게 뭔가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급하게 집으로 돌아갔을 때 제 눈에 맺힌 피사체의 모습을 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기 전에 잠깐 밖으로 나와 취재진을 찾는 최시중 위원장의 두리번거림... 아! 우리에게 할 말이 있구나..... 순간 아파트 주변에 있을 지모를 타 언론사에게 현장을 공유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지하주차장 입구를 막고 기다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검은 차에 검은 양복을 입은 최 위원장의 입에서 검은 얘기들이 흘러나왔습니다.

특종은 운이라고들 말합니다. 특종을 해보니 특종은 운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얼마만큼 고민하고 치열하게 자기 자신에게 반문하는 과정을 거친 기자에게 주어지는 달콤한 열매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대선자금 관련 추가취재가 꼬리를 내리는 형국이 되어 아쉽지만 2012년 방송기자클럽 올해의 뉴스취재부분 본상을 수상하게 되어 여전히 YTN은 살아있다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거액의 상금이 투병 중인 따님의 병간호로 지쳐있는 기술국 김용영 선배께 작은 도움이 됐고, 민석이와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으로 급파해준 데스크 최계영 선배와 열악한 조건에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감사의 맘을 지면으로나마 전해봅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 학교가 달라집니다”

캠페인을 통해 가장 많이 전하려 했던 메시지 중 하나인 “방관”도 “폭력”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다.



많은 어른이 꼭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있다. '요즘 아이들이 우리 때 같지 않다'는 얘기다. 누구나 한두 번쯤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 보지 않았을까? 실제로 '요새 애들은 버릇이 없어'라는 말은 고대의 비석에도 남아있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으니 말이다.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들... 학교폭력으로 어린아이들이 자살하고, 학교를 멀리하게 된 현실은 비단 요즘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임에 틀림이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전하고, 학교폭력 근절 캠페인을 함께 펼쳐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 제작팀의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그렇게 제작한 것이 총 14편. 가능한 다양한 아이টে็ม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 경찰홍보대원들과 함께 콩트 식의 포맷부터 농구선수 김주성과 함께 찍었던 '스포츠의 힘' 편이나, 실제 학교를 찾아가 우수사례들(교운말 쓰기, 티쳐 홈스테이, 멈춰 프로그램 등)을 담았던 것들, 힐링 템플스테이나 학교폭력 치유캠프까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다루면서 '학교폭력'이란 어두운 문제를 담고 있지만 가능하면 자연스럽게 따뜻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애썼다. 특히, 학교폭력 근절노력 우수사례를 많이 담으려 했던 것은 결국엔 희망을 말하고 싶기 때문이었다. 현실에 좌절할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희망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하지만 여전히 뉴스나 신문을 통해 접하게 되는 학교폭력 소식은 마음을 무겁게 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 희망을 꿈꾸고, 대안을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여전히 아픈 우리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일이다.

취재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가해 학생들 중 상당수가 가정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집에서 채우지 못한 결핍을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옳지 못한 방법으로 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기도 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에서도 학교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나 아직 다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한 어린 가해자들에게도 이해와 관심은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일상에서 그저 침묵하는 것으로 가해자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캠페인을 통해 가장 많이 전하려 했던 메시지 중 하나인 “방관”도 “폭력”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다. 무엇이든 잘못인 줄 알면서도 지켜보 고만 있다면 당신은 가해자일 수밖에 없다. 무엇이든 잘못을 인지했다면 해결하기 위한 실천의 움직임이 필요할 것이다. 이 글을 읽는 누군기도 '학교폭력 문제야...' 라고 탄식만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란다. 누구나 알고 있듯 이 모든 답은 '사랑과 관심'에 있다.

정은경 | 학교폭력 근절 캠페인 작가

2013년 새해에도 YTN 라디오와 함께!

YTN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주옥같은 목소리들의 주인공... 궁금하셨죠? 지금 바로, 그 6명을 만나러 갑니다.

전진영 | YTN 라디오 아나운서



박형주

박형주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나태주 시인 '풀꽃' 중)

라디오란 조강지처?

가장 기억에 남는 출연자 '원득이' 유아인 '뉴스 정면승부' 첫 출연자였고, 역대 출연자 인터뷰 전문 조회 수 최고 기록... 아마 당시 동 시간대 청취율도 1위 아니었을까?

최악의 방송사고 "경제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경제 000기자 연결하죠. 07자?" "〈거친 숨을 내쉬며〉네.. 그런데.. 제.제가 나중에 다시 전화 걸면 안 될까요?" 두옥-! (2012년 5월 23일 '뉴스 정면승부' 생방 중)



손영주

손영주는 '그래도 여전히 방송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여자'

가장 기억에 남는 출연자

1. 박재동 화백: 인터뷰를 마치고 담당 피디와 작가, 그리고 진행자인 저의 얼굴을 화백의 손끝으로 그리고, 자에게 필요한 말을 담아 주셨다.
2. 가수 유열: 인물 인터뷰를 처음 시작할 무렵 첫 방송에 출연해 "색깔 있는 방송인"이 되어달라는 선배 방송인의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셨다.

최악의 방송사고 피 터지게 뉴스 하던 날! 정치 뉴스를 하던 중에 코피가 터지더니 멈추질 않던 군요. 뉴스 원고를 접어 받쳐 들고 뉴스가 끝날 때까지 그 피를 받아내며... 피 터지게 뉴스를 했던 기억도 생생합니다.

아나운서가 되지 않았다면 국제 행사 진행자. 이를 위해 영어공부에 매진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매력을 느끼는 분야이죠.



전진영

전진영은 외유내강과 외강내유가 공존하는 사람.

나에게 라디오란 방송에서든 인생에서든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게 하고 반성하게 하는 수단.

가장 기억에 남는 출연자

1. 개인적으로 엄청난 팬인 '장기하와 얼굴들'을 직접 만났을 때, 인터뷰 내내 너무 흥분했던 기억이 있다.
2. 영화를 먼저 좋아했다가 함께 방송하고 난 뒤 더 팬이 된 변영주 감독, 영화 <화차> 구상 중 함께 방송하면서 영화 개봉하면 꼭 다시 라디오에 출연하겠다는 약속을 바쁜 와중에도 지킨 의리파이기도 하다. (막걸리 한 잔 함께 하자던 약속을 아직 못 지킨 게 아쉽다)

해보고 싶은 프로그램 작은 카페나 공원에서 가수들과 청취자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미니 콘서트 공개방송.

진실 토크 ...

서로에 대한 속마음 들여다보는 시간!

함께 일하면서 YTN 라디오 아나운서들은 서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 (위만 공개합니다ㅋㅋ)

1. 가장 술 잘 마시는 아나운서: 김성은, 술 마시다가 스욱 바나나 우유를 사러 사라지는 그녀. 그러나 돌아오면 어느새 멀쩡해져 있다. / 술자리에서 언제 봐도 다시 봐도 또다시 보아도 늘 마시고 있는 모습. 그리고 취하지도 않는 모습. / 퇴근 때 그녀가 흘리는 이말! '아.. 오늘은 집에 맥주가 없는데.'
2. 제일 썰렁한 아나운서: 김 섭, 박형주 (동점!) 김 섭 그의 토크는 어디로 흐를지 종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가끔 정적이 흐른다. 스릴마저 느껴진다. / - 진지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썰렁하다고 느껴지는 걸까? 박형주 안 웃기려 할 때가 더 웃기고, 웃기려고 할 때가 유난히 가끔 치명적으로 썰렁할 때가 있다. (박형주 아나운서 본인도 이 항목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음ㅋㅋ)
3. 결과 속이 다른 아나운서: 손영주 같은 도도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옆집 언니 스타일 / 다가가기 어려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은근히 허당인 면이 있어서 귀여움.
4. 연애 횟수가 가장 많을 것 같은 아나운서: 전진영 아무래도 연세(?)가 있는 만큼 연애할 시간도 많지 않을까 / 연애 상담에 해결책이 딱딱! / 연애를 많이 했을 수밖에 없다. 그녀의 귀여움과 사랑스러움을 남자들이 그냥 돌리 없었기 때문. 그래서인지 그녀의 조인은 실전에서 쌓은 깊은 구력이 느껴진다. 연애 상담거리가 생기면 달려가고 싶은 상담자 1호다. 위 설문조사는 YTN 라디오 아나운서들 간의 친목과 우애를 다지기 위해 진행했으며, 해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밝힙니다. 2013년 YTN 라디오를 책임지고 있는 얼굴과 목소리! <박형주, 손영주, 전진영, 김성은, 김섭, 진미선>을 한해도 저희를 주목해주세요.



진미선

나에게 라디오란 '아주 오래된 연인' 015B _ 나에게 라디오는 늘 함께 해 온 소중한 연인이자 친구.

가장 기억에 남는 출연자

국내 최초의 인조인간 로봇 에버원. 인터뷰하다 보니 이제 로봇까지 인터뷰하는구나 싶었다. 당혹감과 달리 RGC 2011 전국 로봇대전에서 만난 에버원은 인터뷰 중 윈크도 하고, 'Fly Me To The Moon'까지 불러준 게 넘치는 센스만점의 출연자였다.

최악의 방송 사고

"인터뷰 다해놓고 '안녕하세요?' 출연자와의 인터뷰가 끝나고 정리멘트를 해야 할 시점이었다. 하지만 바로 이어질 클로징 멘트에 정신이 쏠려 "00전문가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며 다시 발랄하게 인사를 해버렸다.

아나운서가 되지 않았다면

고양이 카페 주인 5년 전부터 기르기 시작한 고양이의 매력에 푹 빠져있다. 밀당의 진수를 보여 주며 주인 위에 진정 근림하는 반려동물계의 끝판왕. 아나운서가 되지 않았다면 고양이 카페를 운영하면서 고양이들의 집사 노릇을 하고 있지 않을까.



김섭

김 섭은 YTN에 없었으면 정말 섭섭할 것 같은 오아시스

나에게 라디오란 방송 초보에게도 자비가 없는 적나라한 녀석, 주미기편에서 말(馬)은 나, 채찍은 라디오.

아나운서가 되지 않았다면 아마도 영국에서 공부 잘 마치고, 금융권에 종사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 까.

해보고 싶은 프로그램 제발, 시켜만 주십시오. 그래도 굳이 물으신다면 스포츠 관련 프로그램, 생활지식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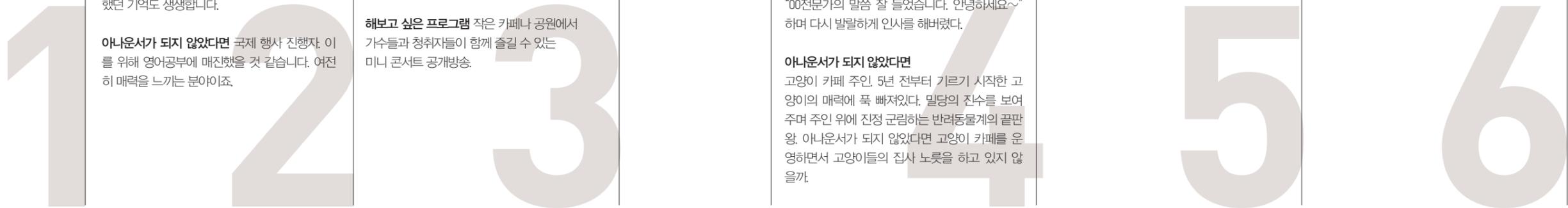
김성은

김성은은 여러 번 봐도 질리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에게 라디오란 감동을 주려다 내가 더 많이 감동받는 따뜻한 공간

최악의 방송사고 프로그램 중간에 간추린 뉴스 해야 하는데, 잇고 음수 사 먹으려 나간 사건

앞으로 해보고 싶은 프로그램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청취자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인터뷰 프로그램



김밥 전문점과 날씨?!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한성주 | <날씨로 읽는 경제> 작가



Episode 1.

혹시 나팔꽃 커튼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난여름 포항시에서 9곳의 공공기관 청문에 나팔꽃으로 커튼 그늘을 조성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나팔꽃 커튼은 햇볕 차단과 에너지 절약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는데 다양한 효과로 방문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이 나팔꽃 커튼의 놀라운 효과는 이산화탄소를 흡수시켜 기후변화 대응차원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지난여름 전력난이 심각하고 폭염이 심각한 시기에 햇볕을 차단해줬던 녹색당굴 식물은 에너지를 절약하는데 효자 아이템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날씨로 읽는 경제>는 날씨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중소기업에서 대기업까지 날씨를 비즈니스 모델에 접목한 생생한 현장을 소개하고 그 성공 비법을 알아 보며, 날씨 경영 전문가의 자세한 설명과 기상캐스터의 재미난 기상정보가 함께 한지 벌써 70회가 넘었습니다.

한 곳 한 곳 날씨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쏟아졌고 날씨로 몇 십억 원의 손실을 막는 등 날씨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Episode 2.

그 중 가장 뿌듯했던 방송이라고 해야 할까요? 제작진에게 잊지 못했던 방송이었는데요, 바로 김밥전문점이었습니다. 김밥전문점과 날씨?!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저희도 출연자에게 어떤 질문들을 할 수 있을까? 과연 20분 방송 시간을 맞출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던 아이템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기상청이 주관한 제7회 대한민국 기상정보대상에서 은상을 수상하며 방송과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10평도 안 되는 김밥전문점에서도 기상정보를 활용하며 매출의 극대화는 물론 비용절감 효과들을 기대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밥전문점의 경우도 날씨정보가 매출을 극대화 하는데 한 몫 했다는 놀라운 날씨경영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기상방송은 물론, 기상청 홈페이지, 131 기상콜센터에서 날씨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며 날씨에 따라 예상 매출량을 분석해 재료 구입량을 조절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나들이 철 매출액이 1천 만 원에서 3배 이상 증가하고 재료 손실량 또한 원가의 30% 이상을 절감했다고 합니다.

최근 기상정보를 기업경영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기업체나 기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10평도 안 되는 김밥전문점에서도 기상정보를 활용하며 매출의 극대화는 물론 비용절감 효과들을 기대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 저희에게 더욱 반가웠던 소식은 김밥전문점이 저희 YTN웨더 <날씨로 읽는 경제>에서 첫 방송을 탄 이후, 김밥전문점의 신선했던 날씨 경영은 KBS 2TV 아침뉴스타임에 소개가 되는 등 그 진가가 발휘되더라고요.

이제는 <날씨로 읽는 경제>는 날씨로 인한 사회 경제 전반의 아이টে을 볼 수 있는, 첫 발굴처가 되는 프로그램이 되기도 했습니다.

파란 가을 하늘 아래 말이 통통하게 살찌는 '천고마비'라는 고사성어가 절로 떠오르는 가을입니다. 즐거운 식도락 여행으로 입이 즐거워지는 가을을 만끽하고 계신가요?

거기에 하나 더~! <날씨로 읽는 경제>에서 날씨와 경제 정보까지 동시에 알아 가신다면

올 가을은 더 없이 풍요롭고 즐거운 계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큐멘터리, 이제 YTN SCIENCE에서 매일 만나세요

김신영 |
사이언스TV본부
편성기획·뉴스제작 팀장



지난해 YTN 사이언스TV는 3차 과학기술전문방송 사업자로 선정됐다.
대한민국에서 과학방송이 시작된 지 만 6년이 지나 10년을 향해 새롭게 도전하고 있다.

과학은 도전이고, 도전은 새로움이다. 새로움은 곧 과학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과학'이라는 단어에 매우 불편한 반응을 보인다. 화학, 물리, 지구과학, 생물 등 과학 수업시간은 지긋지긋하고 시간은 왜 그렇게 더디게 가는지, 화학식이나 이론은 내 평생 언제 써먹을 수 있는지 등을 고민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활용될지 모르는 과학은 알고 보면 늘 우리 곁에서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다. 여러분이 손에서 놓지 않는 스마트폰처럼 어렵지 않게 말이다. 그런 맥락에서 과학콘텐츠도 마찬가지다. 지루하지 않고, 어렵지 않고, 쉽게 이해되도록 제작해 시청자에게 보여줘야 한다. 대한민국 유일한 과학방송인 YTN SCIENCE에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다. 그동안 과학방송에서 다큐멘터리를 '왜 안하느냐', '정체성이 없다' 는 등의 핀잔을 많이 들었다. 안 한 것이 아니라 제작을 했지만 시청자들이 보지 못한 것이다. 시청자들에게 다가가지 못한 많은 이유가 있지만 거두절미하고 불만한 콘텐츠가 부족했던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그래서 준비하고 만들었다. 바로 'YTN SCIENCE 다큐'다.

재미있는 과학, 유익한 과학, 행복한 과학을 위해 과학 다큐멘터리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방송한다. 과학기술부터 디자인, 문화, 역사, 환경, 우주, 동물, 자연, 아웃도어 등 다양한 장르를 시청자들에게 전한다. 새롭게 선보이는 'YTN SCIENCE 다큐'의 가장 큰 특징은 자체제작이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왔는데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기편성 했으며, 누구나 보면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만들어 제공한다.

FROM TEN TO TEN!

자체제작에서 담당하는 콘텐츠는 매일 밤 10시에 과학기술, 도시환경, 디자인, 문화, 역사 등이며 생활과학, 전통문화, 아시아 TOP10 등 볼거리 위주의 국내특선 다큐멘터리도 매일 오전 10시에 방송한다. 오후 3시와 오후 5시에는 우주의 탄생부터 진화에 이르기까지 신비함을 보여주는 우주시리즈와 세계의 절경을 안방에서 감상할 수 있는 테마여행이 여러분의 눈을 즐겁게 한다. 오후 6시에는 과학 과 비과학의 경계를 넘나드는 미스터리,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재앙을 다루는 해외 다큐멘터리를 방송한다. YTN SCIENCE를 보면 과학을 컴퓨터처럼, 스마트폰처럼 누구나 재미있게 즐길 수 있다. 귀한 손님에게 제대로 된 음식을 만듦에 대접하는 마음으로 2013년 YTN SCIENCE는 질적으로 향상된 콘텐츠를 시청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YTN SCIENCE를 아끼고 사랑 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documentary 실제로 있었던 어떤 사건을 극적인 허구성이 없이 그 전개에 따라 사실적으로 그린 것



“파리에서 YTN월드 최효진입니다”

최효진 | YTN월드 프랑스 리포터

오스만 식(式) 거리를 배경으로 이 멘트를 외치며 스탠드업을 한지도 벌써 2년이 되어간다. 저널리즘 공부를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는데도 이렇다 할 실무 경험도 별로 없었던 나는, 열떨결에 리포터가 되자마자 한 가지만 생각하기로 했다.

유학 생활을 하며 내가 보고 느낀 것들을 한국에 있는 시청자들과 공유하는 것 재미있고 유익한 행사에 참석하거나 훌륭한 분들을 만나 개인적으로 일기에만 남기기보다는, 방송을 통해 그때그때 한국에 알리는 편이 더 좋겠다 싶었다. 투철한 기자정신 같은 것이 처음부터 있었다기보다는, 개인적인 기록을 영상으로 남기고자 했던 것이 내 리포터 생활의 시작이었다.

함께 유학생들을 하던 친구들과 함께 촬영과 편집을 도와 줄 팀도 꾸려졌다. 카메라 기자, 오디오맨과 함께 3인 1조로 현장에 뛰어드는 것이 기본적인 취재 형태라고 들었는데, 어쩌다 보니 우리 팀도 그런 셈이 됐고, 촬영하면 캡처나 편집, 혹은 오디오 녹음 등을 주로 내 자취방에서 작업하던 것이 버릇이 되었다 보니 어느새 파리 한복판에 YTN 파리지국 같은 것이 만들어졌다.

다양한 아이템들을 통해 프랑스, 특히 파리 교민들과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프랑스인들의 얼굴들을 담아왔다. 프랑스 국

내외에서 가장 많은 관심거리가 되었던 내용은 아마도 소위 말하는 ‘유럽 신한류’일 것이다. 지난해 봄 이후부터 이미 유럽 문화의 중심인 파리는 일본, 중국, 동남아 등에 이은 ‘신한류’의 발원지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우리 팀은 국내에서 이러한 관심이 확산하기 전부터 이미 K팝과 댄스, 드라마 등을 사랑했던 젊은 프랑스 친구들의 모습을 화면에 담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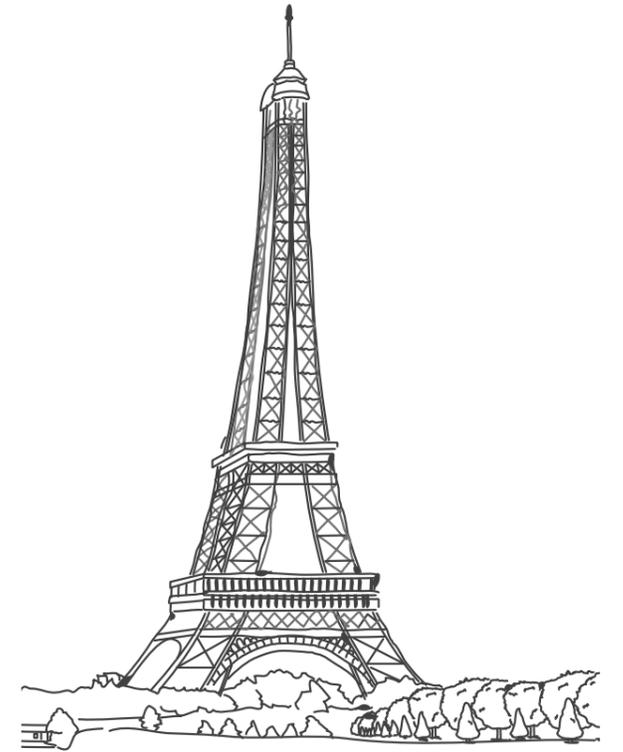
유튜브를 통해 배운 최신 댄스 동호회를 운영하기도 하고, K팝이 주제가 되는 선상 클럽도 매월 기획하는 이들을 만날 수 있었다. 우리는 잘 몰랐지만, 이들은 이미 최소 5-6년 전부터 한국말은 잘 몰라도 K팝을 따라 부르기 시작했고, 드라마를 시청하기 위해 공공연히 떠돌아다니는 번역 자막을 돌려보았다. 어쩌면 그들에게 우리의 갑작스러운 관심이 더 새로웠을 수도 있다.

그 후로 2011년 6월 제니스 공연장에서 SM타운 공연이 개최되고 ‘유럽 신한류’가 더 많은 주목을 받으면서, 우리 취재도 여기에 대해 더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었다. 자사 프로그램의 유럽 진출을 생각해야 했던 타 사보다 YTN은 유럽에서의 신한류 열풍에 대해 좀 더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었다. 대중가요든 드라마든 아직 이렇다 할 한류 문화 소비를 위한 적당한 플랫폼도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에 대해 한류가 더 발전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할 수 있었다. 여전히 대부분의 프랑스 한류 팬들은 웹상에서 소위 말하는 ‘어둠의 경로’를 통해 드라마나 뮤직비디오를 감상한다. 따라서 이렇다 할 소비 패턴을 분석하기도 쉽지 않다.

이 외에도, 사물놀이나 택견 등 여러 한국 전통문화를 사랑하는 프랑스인들의 열정이라든지, 3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한불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활용해 다양한 분야에서 도전을 멈추지 않는 우리 젊은이들의 모습, 특히, 건축, 연극, 만화 등에서 활동하는 신진 재봉예술가들을 카메라에 담아 국내 시청자들에게 소개했던 기억들은 지금도 뿌듯하게 머릿속에 남아 있다. 마지막으로 이 지면을 통해, 파리 현지에서 같은 팀원으로서 리포터인 나의 서툰 부분들을 언제나 채워주는 최효정, 정지윤 양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NOTICE BOARD

NING

포상 | 올해의 YTN 대상 사이언스TV본부 : 제3차 과학기술전문방송 채널사업자 선정 및 사업권 획득 **특별상** 미디어전략실 YTN 5년 재승인 재무회계팀 신시옥 지금 확보 및 부동산 담보 해제 정동균, 한성구 편성운영부, 이성모, 권혁웅 영상취재2부 YTN캠페인 '학교폭력 그만!' 그래픽팀 2012대선 등 선거그래픽 및 가상스튜디오 디자인 제작 **올해의 최우수 프로그램상** 이강문 제작1팀 YTN스페셜 2부작 <두바퀴로 여는 세상> **DMB 우수 프로그램상** 이형철 DMB 채널운영팀 **라디오 우수 프로그램상** 김해민 라디오 뉴스제작팀 / 손영주 라디오 편성심의팀 **모범시원상** 방홍식 정보시스템팀, 윤성희 인사팀, 김세희 총무팀, 임한구 총무팀, 인호연 마케팅기획팀, 김형도 편성운영부, 김경아 사회2부, 이천재 광주지국, 도경희 대전지국, 이하린 문화부, 김지현 과학기상팀, 김재형 스포츠부, 한문규 편집2부, 김혜은 편집3부, 이승현 앵커팀, 최계영 영상취재1부, 이동형 영상취재2부, 김태형 영상편집부, 김진석 영상아카이브팀, 송병준 기술기획팀, 이기래 인프라팀, 김태우 제작기술부, 박종대 제작기술부, 이광희 중계부, 오유철 해외방송팀, 이유찬 편성기획팀, 임채훈 편성제작팀, 곽운근 DMB 채널운영팀, 이창구 DMB 데이터서비스팀, 김태연 DMB 방송기술팀 **4/4분기 특종상 은상** 박소정 과학기상팀 **4/4분기 특종상 동상** 이종구 정치부 / 홍선기, 고한석 사회1부 / 손재호, 강현석 부산지국 / 이광영 LA지국장 **4/4분기 공로상** 김규남 마케팅기획팀, 홍석근 문화부, 한인식, 윤원식, 박정란, 이현수, 정치윤 영상편집부, 김운래, 김지선 제작2팀, 문정훈, 박치훈 제작기술부, 김진호 그래픽팀, 이대환 중계부, 강창국 기술연구소, 안성영 편성기획팀, 신동해 라디오 방송기술팀 **표창장** 심성원 영어뉴스팀, 유창림 뉴스제작팀 12.31 **계사판 퇴사** 노재영, 이동수 타워운영팀 12.31 / 한은구 타워운영팀 11.30 **전보** 조용원(영상취재1부장) 영상부국장 겸직, 최재민 편성운영부, 김문경 사회1부, 김도원 편집2부, 김정아 제작2팀, 이철용 퇴직준비연수 1.2 / 왕선택 워싱턴 특파원 준비 12.26